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같 이

- 1.날 구원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 2.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 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 3.길가에 장미 꽃 감사 장미 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
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성 경 봉 독 ----- 시 116:12-14 -----다 같 이

시 116: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 116: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 116:14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값으리로다

제목 : 감사의 비법

시편 116편은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생활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번 장막을 치는지 아세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42번 이사를 가고, 41번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장막절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행렬을 지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감사의 비법이 무엇일까요?

1.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12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있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보는 것이 감사의 비법입니다.

인간이 지혜로운것 같으면서 참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일어로 물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이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물에는 석회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를 틀면 당연히 물이 팔팔팔 나오니 물이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물을 사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밥도 그렇습니다. 밥이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농부의 손이 몇 번 거치는지 아세요? 88번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미(米)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아니 인류가 식량 때문에 고생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비법은 받은 은혜를 세는 것입니다.

2. 감사가 실체가 되게 하라.

14절에서는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값으리로다” 시인은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가 실체가 되게 합니다. 감사를 실제로 나타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감사를 머리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세야합니다. 먼저 입으로 표현하세요. 늘 입으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세 마디 문장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일교회 공식 인사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입으로 나오려면 감사가 실제로 되려면 감사의 사랑이 있어야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미국에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는 하루에 열두 번 감사한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시간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을 주심에 감사.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점심 식사 시간 대화할 수 있는 동료들 주심에 감사. 일과 후 작은 성취감에 감사. 저녁 식사 시간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 감사. 신문, 텔레비전, 책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또한 물질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에만 담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실제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감사의 비법은 감사가 실제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라경제는 점점 나빠집니다. 인심은 더 박해지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가 실체가 되게 합시다. 감사로 인해 개인과 가정 그리고 몸된 신일교회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ì

추석
가정예배

